

경청의 시간 6

얀네게 스테게만

청년들은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슬프고, 아프며, 지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모두는 울고 있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 이제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과연 진정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웃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웃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때로는 힘든 영적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의 부상, 유대-기독교 우월주의 등 여러 위기가 겹친 이 시대를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식민주의와 깊이 연결된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선교’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선교를 ‘정의를 실천하는 부르심’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개신교와 백인 우월주의가 얽혀 온 역사, 그리고 그 잔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은 규범 기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규범들이 오랫동안 주로 개신교와 백인 우월주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함께 성찰하고 있는가요?

‘선교’는 하나의 신앙적 이상이자, 동시에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한 개신교와 백인 우월주의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교를 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유럽 역사 속 개혁주의 전통의 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민족국가의 형성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대체론), 민족주의와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개신교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의 오랜 기원을 인식하고,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얽혀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한다고 말하며, 우리 또한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조가 억압의 바깥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 구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행하는지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의와 불평등을 계속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종종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제가 속한 네덜란드 개신교회 역시 ‘상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과 ‘DNA’의 일부로 여겨지는 반면, 팔레스타인인과의 관계는 ‘사역적 책임’의 문제로만 취급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참을 수 없는 신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한 동료가 지적했듯 교회 내 인종주의 문제 또한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개신교 우월주의와 백인 중심주의, 그리고 그 현대적 변형인 유대-기독교 우월주의와 관련된 대체신학(supersessionism)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유럽 국가가 식민주의 국가였던 것은 아니지만, 식민주의는 ‘유럽이 기독교적이다’라는 믿음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식민주의는 곧 기독교적 식민주의였으며, 가톨릭과 개신교 식민주의는 많은 공통점을 지녔지만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신교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가 출신의 개신교인으로서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적 맥락에서

인종화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이해해야만,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침묵과 무비판적 지지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자와 팔레스타인을 논의의 중심에 두는 이유는, 미트리 라헤브(Mitri Raheb)의 말처럼 팔레스타인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확대경·현미경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은 제 탈식민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가지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수단이나 시리아, 말루쿠에 관한 것보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인종화된 위계질서는 백인 기독교 유럽을 최상위에 올려놓았고, 유럽 내부에서는 온유하고 이성적이며 ‘문명화된’ 백인 기독교 남성(이성애자·시스젠더)을 정상성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식민 시대가 끝난 뒤에 사라진 일시적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신)식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개신교와 서구 기독교의 자기 이해 또한 식민주의에 의해 계속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형성한 힘이었고, 실제로 지구상 어느 곳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민 지배자도 피지배자도 아닌 공간조차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식민주의를 확대·유통시킨 권력 구조와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종화된 위계질서와 ‘문명화된/비문명화된’ 이분법을 모든 사람과 모든 사상 속에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식민주의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며, 이는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정통 개신교도들에게 ‘선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으며—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주의는 바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때 ‘참된 신앙’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문화적·신체적 우월성 및 민주주의 내 권력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캐서린 거브너의 저서 『기독교적 노예제(Christian Slavery)』가 지적하듯, 백인 우월주의는 개신교 우월주의에서 발전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우월감은 대체론(supersessionism)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개신교 전통을 넘어 기독교 전반에 스며든 오래된 관념으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해 선택받은 백성의 지위를 차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 기독교인들은 ‘영에 속한 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신념’, ‘신체’, ‘문명화’라는 개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기 설교자이자 의사였던 요한 피카르트(1600–1670)의 저작은 이러한 인종화된 신학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는 창세기 9장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이는 곧 창세기 9:26의 성취—그들이 ‘장막에서 쫓겨났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유랑민과 방랑자’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썸의 자리를 차지한 야벳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피카르트는 또한 아프리카인들(함의 후손으로 여긴 이들)에 대해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며,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고, 오직 노예 상태에서만 안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야벳의 유산과 상속지’로, 수많은 ‘예리한 지성’과 ‘학식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는 곳이며, 기독교 신앙을 부여받고 건전하고 확고한 법 아래 통치되는 곳으로 찬양되었습니다. 결국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여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처럼 식민지 개신교는 스스로를 정상적이며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선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학과 세계관은 결국 폭력적 여파를 낳은 위험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 개신교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려면 대체론과 다른 형태의 인종화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홀로코스트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대-기독교 문명'의 일부로 재통합되었지만, 그 통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17세기 기독교 시온주의의 논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유대인의 귀환'을 지지했던 신학적 열정 뒤에는 사실상 유대인들은 유럽에 속하지 않는다는 반유대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학살은 '법을 기반으로 한 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들이 역사적으로 종종 백인 우월주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mission)'가 곧 파괴(destruction)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제가 남기고 싶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 그 파괴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세운 구조들, 심지어 이 공의회 자체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